

종합

# 광주시 출연기관 계약업무 '엉망'

## DJ센터 회의실 세팅업무 5년간 수의계약 광주영어방송국·디자인센터도 감사 지적

광주시 출연기관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5년간 수의계약을 자동연장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해오다 광주시의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광주시가 공개한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광주영어방송국·광주디자인센터 등 3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DJ센터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입찰 방법으로 업

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회의실 세팅업무를 2005년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후 5년간 계속 수의계약으로 자동연장했다.

또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결찰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된 뒤 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하지만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4건의 공사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고 건강보험료 등 6건 394만1000원을 미정산했다. 이 밖에도 DJ센터는 전시회 장치(부

스)공사를 계약하면서 공사 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검토해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하지만 6건의 장치(부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금액 산출기초가 되는 산출내역서도 검토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을 근거로 기초금액을 확정했다.

광주영어방송국은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용역계약은 조달청 계약 사이트(G2B)를 통해 전자결찰을 받아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사업비 등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 지출 및 결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사업의 보조사업비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고 다음연

도에 결산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관련 규정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미정산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했다. 또 용역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결산하도록 요구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이외에도 ▲업무용 재산관리 소홀 ▲예산 편성 업무 부적절 ▲계약관련 절차 이행 부적절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 및 통제합 논의를 위해 오는 13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공기업 조직 혁신추진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바른역사 정립' 달리기대회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광주국학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2010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와 통일기원 전국 달리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대형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내달 광주서 사상최대 국제회의

'G20차관회의' 중앙은행 부총재 등 150여명 참여  
市 "깨끗한 광주 알릴 기회"... 만반의 준비 노력

정비, 기초질서 지키기 등을 추진해 왔다. 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는 회의장인 광주시 동구 무등파크호텔에 대해서는 소방·전기·가스·건축시설물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주방과 식자재에 대한 위생관리, 객실

의는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 의제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실무회의로, 의제설정과 실행계획 등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외국 손님들에게 광주의 장점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G20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G7 국가와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최근 신흥 경제국들로 구성돼 있으며, G20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최상위의 경제포럼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광주 회

의는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 의제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실무회의로, 의제설정과 실행계획 등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외국 손님들에게 광주의 장점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G20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G7 국가와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최근 신흥 경제국들로 구성돼 있으며, G20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최상위의 경제포럼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광주 회

## 여수에 디오션호텔 건립 탄력

설계 변경안 심의 통과... 박람회 숙박시설 확충 도움

여수의 디오션 호텔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초 건립 규모에 비해 크게 축소돼 박람회 관람객들의 고급 숙박시설난 해소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통일그룹 계열사인 ㈜일상해양산업이 여수시 소호동 산 99번지 외 47필지 11만6498㎡에 141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출한 설계변경

안이 전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일상측은 지난달 제출한 설계변경안 가운데 ▲지하주차장 확충 및 지상층 공원화 ▲옥상 녹화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반영 등 전남도 건축심의위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재심의를 받았다.

일상은 현재 기초공사에 들어간 상태로 설계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여수박람회 개최 전인 2011년 12월 완공할 계획이

다.

애초 디오션 호텔은 지난 2006년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247실)로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2008년 지상43층(309실)→2010년 지상17층(141실) 규모로 축소하는 두 차례의 설계변경 및 보완을 거쳐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 호텔이 건립되면 140개의 객실과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중·소연회장 등을 갖춰 숙박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 국민 38% "노후대책으로 공적연금 중요"

상반기 147억 ... 72% 실적

광주시가 올 상반기 체납 세금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광주시의 체납액 징수 실적은 72.8%로 전국평균 50.2%보다 22.6% 높았다. 부산시(67.8%)와 충청북도(61.4%)가 뒤를 이었다. 하위 3곳은 울산시 43.2%, 경남도 43.9%, 대구시 44.5% 순이었으며,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6곳은 50%를 넘어선 반면 10곳은 50%에도 못 미쳤다.

광주시는 상반기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기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징수 목표액 202억원 중 상반기에만 14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최근 예금 및 보험금 등 803건 46억을 압류하고, 체납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해 347명(체납액 60억)에게 사전예고통지를 보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출금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신용불량자등록) 등 행정적재수단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리나라 국민의 38%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꼽았다. 부동산은 1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공적연금 연계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6~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직을 통한 연금간 이동자 2천명 및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공적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대책으로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38.5%가 공적연금을 꼽았

고 이어 개인연금 27.1%, 예금·적금 19.5%, 부동산 13.3%, 주식·펀드 1.4% 등이었다. 연금간 이동자를 역시 38.2%가 공적연금을 노후대책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개인연금 24.6%, 예금·적금 18.4%, 부동산 15.7%, 주식·펀드 2.4% 순이었다.

50대와 60대는 노후대책으로서 공적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50.2%, 65.2%가 동의하는 등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연금을 중요한 노후생활 대책 수단으로 인식했다. 특히 20대도 72%가 노후생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일반국민의 84.5%가 노후대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 직장인 수면 부족... '비용손실' 연 1586만원

13%는 졸음으로 사고 경험

우리나라 성인 직장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5시간으로 절대 부족한다. 13%는 졸음 때문에 사고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면학회(이사장 유범희)는 직장인 554명(평균나이 31.9세)을 대상으로 수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평균수면시간이 6시간36분으로 미국인(7.75시간)에 비해 1시간 이상 잠이 부족한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직장인의 19.5%는 수면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잠자리에 누운 뒤 잠이 들기까지 평균 17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졸음으로 직업관련 사고나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6% (70명)로 집계됐다.

학회는 이 같은 수면부족에 따른 근무시간 손실이 근무자 1인당 연간 711시간 31분(주 5일 기준 하루 평균 약 2시간40분)에 해당하며, 비용손실액은 연평균 1586만4365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세부적으로는 조퇴나 지각 등으로 업무현장을 이탈한 경우의 시간 손실이 1인당 연간 7.42시간(비용 16만 9071원), 근무 중 집중력 저하와 업무 속도 저하 등에 의한 손실이 1인당 연간 703시간49분(비용 1565만9293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밖에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을 보이거나 코골이를 호소하는 경우는 10%에 달했다.

/연합뉴스

### 本사 人事

- ▲林重鉉: 경영지원국 총무부장직대
  - ▲鄭泐鎮: 독자서비스국 판매부장직대
  - ▲金清洙: 동부취재본부 순천주재
- (8월 9일자)

### 사람을 찾습니다

나이 49세  
키 170cm  
몸무게 73kg

원래리가 할만함도 하며 치어라 들리잖아 허세없, 오분복 입지않아 용이거 인품, 주는 광주시 서구 농성동, 혼자 살면 2009년 7월 11일 나거 연태이 두정동

사레하겠음

011-9601-9251  
011-9601-8432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리더십 실용특강 과정

- 1. 스피치 리더십의 중요성
- 2. 스피치 리더십의 개념
- 3. 스피치 리더십의 구성요소
- 4. 스피치 리더십의 효과
- 5. 스피치 리더십의 적용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3157, 3168  
www.gju.ac.kr/~lifelong

### 수강생 모집

## 스피치 리더십 과정

본 과정의 특징

- 1. 실용특강: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내용을 다룬다.
- 2. 실용특강: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내용을 다룬다.
- 3. 실용특강: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육 목표

- 1. 스피치 리더십의 중요성 이해
- 2. 스피치 리더십의 개념 이해
- 3. 스피치 리더십의 구성요소 이해
- 4. 스피치 리더십의 효과 이해
- 5. 스피치 리더십의 적용 이해

이 수료의

문의처

010-9441-7000